

대입 전형 평가요소...내신 성공 관리법

수능 직결...3학년 성적이 당락 가른다

원하는 대학 전형 맞춰 '맞춤형 관리'

1·2학년 성적 떨어져도 포기는 금물

1,2학년 내신성적이 떨어지는 고교 3학년의 경우 대입 수시전형을 포기하고 정시나 대학별 고사 준비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학별 내신성적 반영비율과 과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학의 전형에 맞춰 내신성적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3학년 성적을 높게 반영하는 대학도 있는 만큼 내신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쏟아야 한다. 입시 전문가인 진학사가 권장하는 내신성적 관리법을 간추렸다. <내신 공부하는 수능의 연장선>=3학년 내신은 수능과 별개일 수 없다. 많은 고등학교에서 수능 과제로 진도를 나가고 중간, 기말고사에서 수능형 문제를 출제한다. 평상시 수능 공

부하 중간, 기말고사 기간에 하는 공부를 연계시켜야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중간, 기말고사를 평소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하는 기회로 삼거나 수능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해야 한다. 중간, 기말고사를 통해 공부할 수 있는 단원은 해당 시험 기간을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다른 단원을 공부해, 단원이 중복되는 것을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내신성적 만화의 마지막 기회>=1,2학년 내신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들은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 공부에 매달리거나 논술 등 대학별고사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수시 역시 대입에 있어 중요한 기회이다. 또 논술 전형에서도

학생부 성적은 중요한 평가요소이므로 논술에 앞서 내신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올해 수시전형에서는 논술 100%전형이 모두 폐지돼 그만큼 내신 비중이 높아졌다. 대학별 내신 반영이 천차만별인 것도 고려해야 할 부분. 많은 대학들이 전 과목의 성적을 모두 반영하지는 않는다. 전체적인 성적은 낮더라도 대학별 성적 산출방법에 따라 유리한 경우도 있다.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에서 반영하는 교과목을 중심으로 관리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학년별 내신 반영비율이 다른 대학도 있다. 이들 대학 중에서 3학년 반영비율이 높은 대학은 3학년 중간, 기말고사를 통해 부족한 내신을 만회할 수 있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기본도 내신>=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내신이 좋지 못해도 경력이나 수상실적만으로도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입학사정관 전형은 내신을 통해 대학 수업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습능력을 평가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망각해선 안된다. 기본 학습능력이 있는 학생들 중에서 기타 재능과 잠재력까지 고려해 선발하는 것이 입학사정관 전형의 핵심이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일반 전형과 달리 학년별 반영비율을 정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전 학년 성적에 대한 우수성 평가와 함께 학년별 성적의 추이도 고려한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꾸준히 올랐다면 발전가능성 및 잠재력이 뛰어나며,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진학사 김희동 입시분석실장은 "올해는 수시에서 논술 100%전형이 폐지되고, 입학사정관 전형이 확대됨에 따라 내신의 비중이 커졌다"며 "1, 2학년 내신이 좋지 못한 학생의 경우 오히려 3학년 내신을 역전의 기회로 삼아 성적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독서토론 클럽에 가입하세요" 조선대학교 독서토론 클럽 학생들이 최근 교내에서 신입생 등을 상대로 각 클럽 소개와 클럽 활동 내용, 실적에 따른 해외 연수 등 다양한 특전을 내세우며 가입 홍보를 하고 있다.

동신대 창업보육센터 사업운영 중기청 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동신대 창업보육센터(소장 박성천 토목공학과 교수)가 중소기업청의 2011년도 사업 운영 평가 결과,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동신대 창업보육센터는 1999년 문을 연 이래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입주업체에 대해 경영 및 기술 지원, 마케팅 및 투자 지원, 지적재산권 업무 지원 등을 해줌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높여왔다. 특히 대학 내 연구 인력과 산학 협

력시스템을 활용, 기술집약형 창업을 지원해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기업 육성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같은 활발한 성과에 힘입어 2009년 중소기업청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주관기관 선정에 이어 청년창업 특화 보육 사업에도 선정돼 3년째 운영하고 있다. 동신대 창업보육센터가 최고 등급 평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채희종기자 chae@

여대생커리어개발 여성가족부 지원사업 광주대 3년연속 뽐내

광주대가 광주지역 대학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여성가족부 주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 시행 대학으로 선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여대생들의 진로개발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 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올해 광주대를 비롯해 전국 25개 대학을 지원 대학으로 선정했다. 광주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남·녀 학생들의 멘더의식 강화를 위한 영화상영(Cine Night), 경제능력 부부 함께 가꾸기, 여대생의 진로 개발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스콜프강, 취업현장 연계 및 지원 등 총 17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중 지역사회 미취업 고학력 여성의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백조, 알파열되!' 프로그램의 경우 현재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취업을 원하는 지역사회 모든 미취업 여대생들에게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교정, 원하는 직업군에 대한 상세 정보 등 다양한 도움을 제공한다. /채희종기자 chae@

특허청 유망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조선대 산학협력단 3년 연속 선정

조선대학교가 특허청 유망기술 발굴 및 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 조선대 산학협력단(단장 이행남)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 중 기술·권리·시장성이 유망한 기술을 발굴, 사업화전실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R&D 재투자 등을 촉진하는 '2011년 유망기술 발굴 및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2009년도와 2010년도에도 이 사업에 연속 선정된 조선대는 2009년도 김태형 교수(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의 '세포사유도 펩타이드' 기술의 이전을 성사시켜 특허청의 모범사례

로 선정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최철희 교수(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의 '항암내성 진단키트' 기술의 해외기술이전을 성사시켜 특허청/R&D특허센터로부터 BIT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1단계 사업 이후 지속적인 추가 지원을 하는 2단계 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1단계에서는 1개 기술 분야 당 1200만원의 사업비(매칭 200만원)를 지원하며, 최종단계에서는 과제당 5000만원이 지원되는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대동고 수능 표준점수 광주 일반계 고교중 최고

대동고의 2011학년도 수능 표준점수가 광주 지역 일반계 고교 중 가장 높은 339.7점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에게 제출한 '2011학년도 학교별 수능성적 자료'에 따르면 대동고의 표준점수 합계 평균은 339.7점이었다. 이는 광주과학고(348.1점)를 제외한 일반계 고교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다음으로는 대광여고(339.6점), 대성여고(338.2점)순이었다.

언어와 수리, 외국어 등 3개 영역 평균 1.2,3등급 이내 수험생 비율도 35.4%로 광주 일반계 고교 중 1위였다. 이어 대광여고(35.2%), 동신고(32.2%), 금호고(31.5%), 인성고(31.2%) 순이었다. 대동고는 올해 서울대 합격자 7명을 배출하는 등 두각을 나타냈다. 대동고 관계자는 이같은 성과는 교사의 열정적인 지도와 학생들의 노력이 바탕이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광주여대 허은선씨 글로벌 인턴십에 선정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오장원) 어린영양교육학과 4학년 허은선(사진) 학생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2011년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 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은 전국의 4년제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외 인턴십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 인

재를 양성하고, 대학 교육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교협이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허은선 학생은 광주·전남북 지역 대학생 중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인문학으로 수다떨기'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인문학좌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인문학 국사학단(원장 이강래)이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해 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인문학으로 수다떨기' 인문학좌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강좌는 오는 6월30일 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광주여성발전센터 2층 7강의실에서 진행되며 역사, 문화, 철학 등을 전공하는 인문학국사학단 교수진이 강사로 참여한다. 특히 이 강좌는 인문, 민속, 음악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인문학을 대중에게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인문학좌 일정과 주제는 다음과 같다. ▲박재가 된 '잔재'를 아시나요? : 동경삼재 (4월14일·류시현) ▲그들도 우리처럼 : 한국

의 풍속화 (4월21일·이선욱) ▲미우나 고우나 : 옛시를 통해 보는 여인들의 사랑 이야기 (4월28일·조태성) ▲그대, 너무 아름다워요 : 중국 역사 속 절세미인들 (5월12일·김창규) ▲비움의 행복, 노니는 여유 : 노장철학이 말하는 삶의 정수 (5월19일·정용환) ▲기쁜장래, 슬픈 혼례 : 일상의 민속풍속 (5월26일·허응호) ▲여악반는 유색인의 목소리 : 블루스와 대중음악 (6월2일·최유준) ▲인생, 이렇게 경영하라 : 다산이 가르쳐 준 삶의 지혜 (6월9일·김병인) ▲아프냐? 나도 아프다! : 유가철학에서 배우는 사람之道 (6월16일·김경호) ▲같이 예로연하 한 번 보실래요? : 한국 문화 속 예로스의 풍경들 (6월30일·정명종)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복대지 공인중개사사무소' (Bokdaegi Certified Real Estate Agency). The ad is divided into several columns, each featuring a different property listing. The listings include details such as location, area, price, and contact information. The agency's phone number is 062)364-8887. The ad also includes a section for '신진공인중개사' (New Real Estate Agents) and '금산공인중개사' (Ginsan Certified Real Estate Agents).